



불가리아를 향한 상승이네 가정행진 AUGUST 2024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일서 5:4)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것처럼 자신들의 투혼을 불살라 메달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서 "나는 영원한 나라의 메달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었나?"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금을 위해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기도 시간 1분, 복음 증거를 위한 한걸음, 말씀 앞에서 1장, 자신의 경건을 위한 1분을 더 결단하고 채찍질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계획해 봅니다. 불가리아 땅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영혼을 섬기는 목자로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동역자님들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기도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님의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각자의 경기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길 이곳에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들 중에서,,, (프레슬라브 교회)

지난 5월 26일(주일)은 프레슬라브 교회가 세워진 지 14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온 마음 다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뻐했는지요! 예배 이후에는



야외 좋은 장소로 이동하여 양(음매~~)도 잡고, 돼야지 고기로 바비큐 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라옵기는 시간이 흐르고 해가 바뀔수록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의 군사로 살아가길 기도해 봅니다.

프레슬라브 교회는 터키계 무슬림들이 개종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스스로 세운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많지 않지만 한 사람, 한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영혼들입니다. 이 보석 같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저희 외에 이들 중에서 세워지길 기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야 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 많은 고민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분명 위에 계신 분은 살아계시는데 아직은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말씀해 주시면 최고겠지만,,, ㅋㅋㅋ)

프레슬라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이들 중에서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부분이 어렵다면 함께 사역할 한인 사역자나 현지인 동역자가 붙여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멈춰지지 않 기름,,, (다비드 교회)



지난 5월 25일(토)은 일 년에 한 번 있는 달란트 시장이 다비드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 했던 축구공, 어른 성도들이 필요로 했던 밀가루, 기름, 설탕, 중고 옷과 장난감, 과자 및 음료수 등등 많은 것들과 함께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배 이후에 달란트가 많은 아이와 어른들 10명에게 먼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살 기회를 주었지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10명, 순차적으로 진행된 달란트 시장은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횡수가 거듭될수록 성숙한 모습이 이들 가운데 나타남을 보면서 믿음 또한 성장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달란트 시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섬겨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이 접어들면서 점차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7월 초에는 40도가 넘어가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저희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선풍기를 돌렸지만, 태양의 열기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늦춰 예배를 드렸지만, 컨테이너 양철 지붕에서 짓누르는 열대야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더웠지만, 예배를 멈출 수 없었기에 야외 그늘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더위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 더위가 가시기까지 8월 한 달간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예배가 멈춰져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 지속할 방법이 다윗도브 교회에 나타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승, 하윤, 하진이네 이야기,,,

지난 7월 초 방학을 맞아 둘째 하윤이가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태어나 부모와 가장 오랜 시간 떨어져 홀로 지내다가 만난 소중한 날들이었습니다, 철이 든 것일까요? 아니면 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말과 행동에 성숙해진 딸을 보면서 순간 "내 딸 맞니" 생각하면서 짜~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8월 말, 군 복무하는 큰아들 하승이가 말년 휴가로 약 10일간 이곳을 방문합니다, 어제 군에 입대한 것 같은데 벌써 제대한다는 사실에 시간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승이는 9월 말에 제대하고 내년 초에 대학교 2학년에 복학하게 됩니다,

축구 선수가 꿈인 막내 하진은 여전히 축구를 사랑하며 즐기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일주일에 4일 훈련과 한 번의 시험, 하루는 자신의 체력과 기량을 위해 스스로 훈련을 하면서 꿈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꿈꾸며 앞을 향해 달려가는 하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함께하길 기도해 봅니다,

요즘 세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저희에게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9월 말이면 하승이가 군에서 제대하고 11월 말이면 하윤이가 대학 기숙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막내 하진도 한국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처를 한국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아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준비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불가리아 기도 제목

- ◎ 불가리아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에게는 정직하고 공정한 마음을 갖도록.
- ◎ 프레슬라브 교회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여 주위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 ◎ 다윗도브 교회 예배가 환경에 의해 멈춰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 ◎ 프레슬라브 교회와 다윗도브 교회를 함께 섬길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 ◎ 하승,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군 생활 마무리하고 복학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하윤, 학업과 신앙생활의 삶이 조화를 이루어 자신의 꿈을 찾아가도록. 하진, 12학년(고3) 학교생활 잘하고 축구 선수의 꿈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세 자녀가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집이 구해지도록.
- ◎ 선배선교사님(김기택, 이규자) 건강과 아름다운 협력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 ◎ 어려운 시기에 기도와 물질로 섬기시는 모든 동역자님의 교회와 가정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이경란 E-mail: 0547fisher@hanmail.net. 불가리아 주소: bul. Pliska No:12, Kt:2, Apt No:4. Shumen, Bulgaria. TEL: 070-8237-8438

파송단체: 바울선교회 <http://www.bauri.org>. 카카오 아이디: 0547fisher

파송교회: 영안교회(02-375-0561~2) 담임목사: 이종환.

